

‘오월광대’ 박효선 전집 나온다

극단 ‘토박이’ 창단
5·18 관련 연극 제작
고인 18주기에 맞춰
3권 분량으로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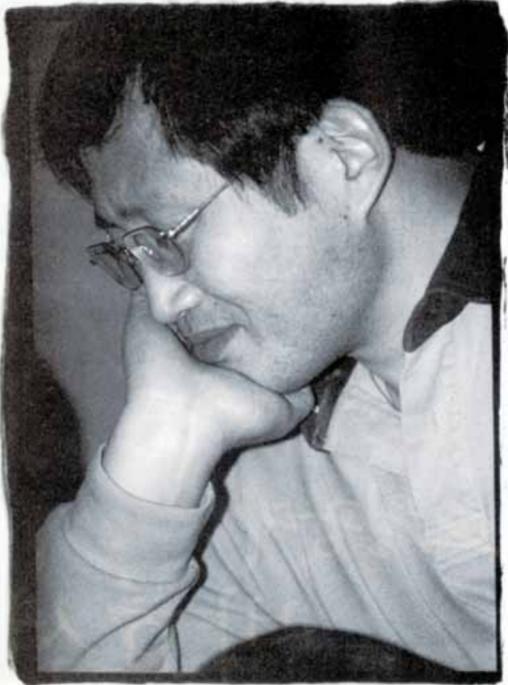
〈1982년 8월22일〉
유독 쉬 잠들지 않는 밤이다. 시를, 위대한 시인의 작품들을 읽어도-가슴에 닿는 게 없다. 나는 속맥이 왜버린 듯 싶다. 짝짝이 책을 가까이 해야겠다. 하루 단 한 페이지를 보더라도 다시 책을 살 한 조각 다루듯 해야겠다.
〈1992년 어느날〉
10년 동안 계속 해온 학원 강사 생활을 ‘혹성탈출!’ 드디어 이달 말부터 이 요지경 속을 탈출하기로했다. 얼마나 그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었나. 늙는다는 건 완성되어 가는 것. 조조해할 필요없다. 〈중략〉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아내의 눈자위에 드리운 그림자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는 아들놈에게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야 한다’고 결단한다. 간신히 궁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영악한 아들놈에게 죄라도 지은 느낌이었다.

토박이 단원들 오랫동안 준비

‘오월광대’ 박효선(1954~1998)의 육성이 담긴 일기엔 그의 고뇌가 담겨 있다. 언제나 ‘오월 광주’를 노래했던 극단 토박이 대표 박효선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8년이 지났다.
토박이 단원을 비롯해 그를 기억하는 이들이 ‘박효선 전집’(전 3권)을 준비중이다. 5주기였던 지난 2003년 ‘박효선’을 기리는 사람들이 120페이지 분량의 추모 문집 ‘오월 광대’를 펴낸 적은 있지만 그의 작품과 일기, 평론 등을 포함한 책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1권은 대표작과 비평, 박효선론을 담는다. 1978년 합평 농민회 회원들의 요청으로 집필했던 마당극 대본 ‘합평고구마’를 비롯해 ‘돼지풀이’, ‘잠행’, ‘시민군 윤상원’, ‘밀향 탈출’이 수록된다. 특히 ‘오월 3부작’으로 불리는 ‘금희의 오월’과 ‘모란꽃’, ‘정실홍실’이 실릴 예정이다.

2권은 보존작이다. ‘누가 모르는가’, ‘하이파에 돌아와서’, ‘말들이 일어나라’, ‘어머니’, ‘김삿갓 광주방랑기’,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아버지에게도 눈물은 있다’, ‘가물치 왕자’, ‘레드 브릭’ 등 9편이 실린다.

1954~1998



제1권 대표작
시민군 윤상원 ‘모란꽃’ ‘금희의 오월’ 등
제2권 보존작
‘누가 모르는가’, ‘어머니’, ‘김삿갓 광주방랑기’
제3권 수기
일기·신문 인터뷰·평론·토박이가 걸어온 길

3권은 수기로 꾸민다. 신문·잡지 기고문, 팸플릿에 실린 글, 일기, 인터뷰 등이 담겨 있다. 한 연극 예술가의 일기, 토박이가 걸어온 길, 무대에 올리면서 등으로 구성했다. 부록으로는 임철우, 김경주 등 지인들이 기억하는 박효선의 모습을 실을 예정이다.
황광우씨 적극 지원
‘박효선 전집’은 토박이 단원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작업이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한 상태였다. 여기에 힘을 실어 준 이가 황광우씨다. ‘들불야학’ 시절 처음 박효선과 인연을 맺었던 황 씨는 ‘오월광대’ 책자를 읽고 “박효선을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토박이를 만들고 5월 관련 연극 등을 제작해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5·18 당시 시민군 홍보부장을 맡았다는 사실 등은 전혀 몰랐다. 무엇보다 “국문학적, 연극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의 작품을 분석하고 그의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팔을 걷어 붙였다.
제작비는 박효선을 기억하는 이들이

“‘함께’ 책을 만든다는 의미를 살려 일정 부분은 모금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제작비 일정 금액 모금
‘박효선 전집’ 출간과 함께 토박이는 또 다른 출발을 앞두고 있다.
전남대 국문과 출신으로 전남대 극회에서 연극을 시작한 박효선은 1983년 극단 토박이를 창단하고 1989년 전남대 정문에 ‘민들레 소극장’을 오픈했다. ‘금희의 오월’, ‘모란꽃’ 등 5월 관련 작품들이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1994년 계속되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폐관 공연작을 올렸고, 이때 단원들도 놀랄 일이 벌어졌다. 폐관 소식을 들은 이들이 심사일만 돈을 보내왔고 1995년 공동 예술의 거리에 다시 극장을 오픈했다.
민들레 소극장은 올해부터 동명동 전남여고 뒷편에 마련한 새로운 공간에서 관객들을 맞을 예정이다. 지난 16일 찾아간 새 공간은 공동 건물보다 층고가 높고 면적도 넓어 작품을 올리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3층은 연습실과 사무실, 4층은 150석 규모 극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사는 지난해 7월 했지만 단원들이 일일이 모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공정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모란꽃’을 무대에 올리며 오월 레퍼토리 공연에 들어간 토박이는 올해 ‘금희의 오월’을 공연할 예정이다. 개관식은 책 출간에 맞춰 9월에 열 계획이다.
“오월 상설공연 이어갈 것”
“선배님은 천성 연극쟁이셨어요. 계획성과 추진력이 뛰어나셨죠. 새 작품에 들어갈 때면 항상 새 공책을 사서 작업 노트를 쓰며 계획적으로 작품을 제작하셨어요. 극장이 터무니없어 아무말 없이 조용히 먼저 빛자루를 들던 그런 분이셨죠. 새로 마련한 공간에서 오월 상설 공연을 꼭 이어나갈 생각이예요. 그제 남아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1987년부터 토박이에서 활동한 임해정씨는 “새로 마련한 공간은 대관도 진행해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예술의 거리에 있던 극단
전남여고 뒷편에 새 등지
책출간 맞춰 9월 개관
‘금희의 오월’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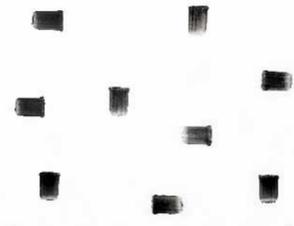
‘함께’ 책을 만든다는 의미를 살려 일정 부분은 모금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제작비 일정 금액 모금

‘박효선 전집’ 출간과 함께 토박이는 또 다른 출발을 앞두고 있다.
전남대 국문과 출신으로 전남대 극회에서 연극을 시작한 박효선은 1983년 극단 토박이를 창단하고 1989년 전남대 정문에 ‘민들레 소극장’을 오픈했다. ‘금희의 오월’, ‘모란꽃’ 등 5월 관련 작품들이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1994년 계속되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폐관 공연작을 올렸고, 이때 단원들도 놀랄 일이 벌어졌다. 폐관 소식을 들은 이들이 심사일만 돈을 보내왔고 1995년 공동 예술의 거리에 다시 극장을 오픈했다.
민들레 소극장은 올해부터 동명동 전남여고 뒷편에 마련한 새로운 공간에서 관객들을 맞을 예정이다. 지난 16일 찾아간 새 공간은 공동 건물보다 층고가 높고 면적도 넓어 작품을 올리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3층은 연습실과 사무실, 4층은 150석 규모 극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사는 지난해 7월 했지만 단원들이 일일이 모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공정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모란꽃’을 무대에 올리며 오월 레퍼토리 공연에 들어간 토박이는 올해 ‘금희의 오월’을 공연할 예정이다. 개관식은 책 출간에 맞춰 9월에 열 계획이다.

“오월 상설공연 이어갈 것”

“선배님은 천성 연극쟁이셨어요. 계획성과 추진력이 뛰어나셨죠. 새 작품에 들어갈 때면 항상 새 공책을 사서 작업 노트를 쓰며 계획적으로 작품을 제작하셨어요. 극장이 터무니없어 아무말 없이 조용히 먼저 빛자루를 들던 그런 분이셨죠. 새로 마련한 공간에서 오월 상설 공연을 꼭 이어나갈 생각이예요. 그제 남아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1987년부터 토박이에서 활동한 임해정씨는 “새로 마련한 공간은 대관도 진행해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우환 작 '조용'

‘단색화, 채움과 비움의 美’ ‘화조화-꽃으로 날아들다’

보성 우중미술관 5월까지

보성 우중미술관이 ‘단색화, 채움과 비움의 美’전과 ‘화조화-꽃으로 날아들다’전을 5월31일까지 동시에 개최한다.
단색화전은 김환기, 이우환, 박서보, 정성화, 김기린, 김창열, 진옥선, 김일권 등 작가 13명 작품 21점을 선보인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단색화 열풍이 불고 있다. 선의 미학을 보여주는 이우환은 한국 생존 작가 중 작품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짧지만 무게감이 있는 붓터치가 인상적인 ‘조용’이 출품된다.
2010년부터 매년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는 김일권 전남대교수는 최근작 ‘무제 15-12’, ‘무제 15-04’를 내놨다. 캔버스를 상하로 구분하는 두가지 색은 자연과 빛을 표현했다.

이외에도 정성화, 박서보 등은 채움과 비움을 통해 은은하고 미묘한 감성을 보여준다.
화조화전에서는 의재 허백련, 금봉 박행보, 청담 김명제, 이당 김은호, 월전 장우성, 운보 김기창, 구룡산인 김용진, 탄월 김경원, 유산 민경갑, 남농 허건 등 10명 작품 19점을 볼 수 있다. 꽃, 풀, 새 등 같은 주제를 놓고 벌이는 대가들의 표현 기법을 비교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직업 화가들이 그린 그림은 사실적이고 장식적인 면이 특징이고 문인화 작품들은 수묵을 위주로 정신성을 강조한다.
수묵대첩 기개가 돋보이는 남종화 ‘화조괴도’(의재 허백련)와 화려한 채색이 눈길을 끄는 북종화 ‘화조도’(이당 김은호)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기회다.
문의 061-804-109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모란 추억하다’

전남여성플라자, ‘지그재그’ 주제 선명주 개인전

전남여성플라자(원장 손문금)가 ‘지그재그(ZigZag)’를 주제로 올해 기획 전시를 개최한다. 5월(6일까지 열리는 첫번째 기획전은 서양화가 선명주 개인전이다.
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눈으로 만지다’를 주제로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선 작가는 기획전 주제 ‘지그재그’에서 ‘지그’는 자연 풍경을, ‘재그’는 모란꽃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다.
작품 ‘모란 추억하다’는 멀리서 보면 마치 십자수를 놓은 듯한 모양이다. 강진에서 피는 모란을 픽셀아트 기법으로 표현했다. 개인이 모여 집단이 이루는 모습처럼

각기 다른 모양, 무수히 많은 사각들이 모여 작품을 이룬다.
또 사각 픽셀만으로 운무, 산 등을 표현한 ‘계림산수’도 전시된다. 중국 절경 중 하나로 꼽히는 계림 풍경을 작가 특유의 미적 감각으로 표현했다.
목포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선씨는 2009년 한국미술대전 입선, 2008년 단원미술대전 최우수상, 2006년 남농미술대전 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 광주·전남여성작가회, 목포여성작가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1-260-732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